

# 국힘 후보들 용산 향해 ‘눈총’

### “이대로 가면 거의 전멸이다 민심 엇나갈 땐 바로잡아야 민생 아픔 공감 메시지 필요 의대정원 시기·규모 재검토”

국민의힘 4·10 총선 일부 후보들이 27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 북구갑 서병수 후보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건 좀 잘못됐다’ 하면서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너무 소동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사 문제, ‘대파 발언’ 등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정부가 바른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갑 김영우 후보는 이날 채널A 유튜브

브 ‘총선시그널’에 출연, “여태까지 용산도 여러 오만하게 비쳤던 부분에 대해선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한 수도권 후보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거의 전멸이다.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는 애절함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 최재형 후보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대파 발언’ 논란을 두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윤 대통령을) 모시고 간 보좌 기능에 문제는 있다고 본다”며 참모진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런 의견은 ‘잇발’ 대구·경북(TK)에서도 나왔다. 대구 달서병 권영진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대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간 것”이라며 “물가를 점검하려면 물가가 비싼 곳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의사 출신인 서울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SBS 라디오에서 ‘내

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증원 시기·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출신인 서울 강서을 박민식 후보는 후보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자신이 ‘흉상 이전을 반대했다’고 밝힌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아당이 언제부터인지 국방부에서 주도한 흉상 이전 문제를 마치 박민식 장관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더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이런 기류에 중앙선대위 지도부까지 용산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기자들이 묻자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 “여의도는 개발제한 풀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안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광주 이색 후보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광주 8개 지역구에 총선 후보를 모두 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국민의힘 ‘불모지’인 광주를 변화시켜보겠다고 나선 정치 신인들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은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 광주 서구를 선거구로 도전장을 내민 5·18당시 소년 시민군이었던 김윤 후보다.

## “의사 출신...여당 후보로 지역발전에 기여”

### 동남을 박은식

박은식 후보는 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초·중·고교를 광주에서 나온 그는 “고향 광주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4·10 총선에서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고 한다. 박 후보가 동남을 선거구를 출마 지역구로 선택한 이유는 모교와 친가가 모두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출마 당시 ‘정율성 사업’을 막겠다는 의지로 밝혔는데, 정율성 사업이 동남을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그는 대학 진학으로 상경한 뒤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낙후된 광주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한다. 그는 “광역단체에 흔한 복합쇼핑몰, 5성급 호텔이 없고 지하철 또한 ‘반쪽’에 불과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해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고, 이에 정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낙후된 광주 배경에는 ‘정치 대안 세력’이 없는 민주당 일당 독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물표를 주는데 광



주는 항상 변방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적화된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바둑 민심을 훑고 있다. 그는 “사랑하는 내 고향이 진보좌파에게는 이용만 당하고, 보수우파에게는 버려지는 것이 너무 싫고 자존심이 상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며 “저를 키워준 고향 광주에 보답하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충장로 지점 출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스크린 경마장 이전 ▲장고형 복합쇼핑몰 동구 유치 등을 약속했다.

## “5·18시민군 활동...광주 일당구조 깨고파”

### 서구를 김윤

서구를 선거구에 출마한 김윤 후보는 5·18을 생생하게 겪었고, 이로 인해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운동권 인사로 꼽힌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김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는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해 시위에도 참여하고 대학생 형들을 따라 도청에도 들어갔다. 대학생 선배들은 왜소하고 어린 김 후보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김 후보는 서울대에 진학한다. 김 후보는 대학 진학 후 국가 폭력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운동권 생활을 했다. 1983년 서울대 자연대 건물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치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는 40여년 만에 광주로 돌아와 ‘돌아온 소년 시민군’을 기치로 내걸고 출마를 결심했다. 김 후보는 ‘세계 경영’을 내걸고 인재를 찾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만나 경영인으로서의 길을 걸었고,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까지 맡았다. 운동권 출신이지만 기업 경영을 잘 아는 것도 독특한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17대 총선 때 선거구가 분구된 후 ‘보수 정당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 후보가 많이 당선된 곳이어



서 김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도 관심사다. 김 후보는 ▲광주 도심 하천·양동복개상가 생태 복원 ▲영산강변 서장에 해외 교민들을 위한 ‘귀향마을’ 조성 ▲헬스·뷰티 산업 육성 ▲풍암호수 수량 보존·수질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대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못사는 모습을 보면서 일당 독재를 깨고 싶었다. 대우자동차 세계경영 기획단장을 해보면서 체득했던 안목과 경험을 광주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